성결대학보

SUNGKYUL NEWSPAPER

CONTENTS

교육이념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교육목표** 기독교적 지도자 / 창의적 전문인 / 자율적 봉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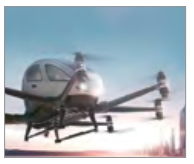
NO.383 2021. 04. 28 Wed

발행인 김상식 **주간** 임태균 **간사** 조선미 **편집장** 김가윤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tel. **031-467-8351, 8276** http://**www.sungkyul.edu**

3 보도 부활절을 기념하며

5 취업 N잡의 시대

8 기획 우주산업 적자라고 누가 그래?



13 교양 교통체증 멈춰!

취임사

제9대 총장 취임 인사

총장 **김상식**

사랑하는 학생 및 교직원 여러분! 지난 3월 26일 제9대 성결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한 김상식입니다. 새로운 미래!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는 비전을 품으며 이제 막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결대학교가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창의 융합적 혁신 역량을 갖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 선도적 대학이 되도록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자 합니다. 성결대학교는 학생중심, 경험학습중심, 융합·연계를 지향하는 교육혁신을 추진하여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한 교육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학생들에게 만족도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기업, 지역사회, 국가 등 교육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국내 모든 대학들은 21세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여러 위기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추구함으로써 위기를 더 큰 기회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인간성을 상실해 가는 과학기술시대에 인성과 공동체적 자아를 겸비한 혁신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 방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시민의식에 기초한 인성교육을 추구하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곧 성결대학교의 미래입니다. 성결대학교는 지속적인 혁신으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도전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2일

제9대 성결대학교 총장 **김상식**

미리보기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7면에 계속〉

우주산업 적자라고 누가 그래?

〈8면에 계속〉

무엇보다 강력한 문화의 힘

〈12면에 계속〉

본교 동아시아물류학부 한종길 교수, ‘KOREA SHIPPING GAZETTE’ – “해운물류·조선 행정 일원화 필요성” 인터뷰 진행

본교 동아시아물류학부 한종길 교수가 국내 해운항만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전문 업계지인 KOREA SHIPPING GAZETTE에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한종길 교수는 초대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의 출범 취지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 글로벌 해운물류 여건과 국제무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운항만물류와 국제무역 학술진흥단체를 육성하며 해운항만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함임을 천명했다.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는 국내 권위있는 10개 대표 학회(▲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해사법학회 ▲한국관세학회 ▲한국물류학회 ▲한국국제상학회 ▲국제e-비즈니스학회 ▲한국중재학회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한국무역통상학회) 연합체로서, 국내 해운항만 및 국제무역 연구 활성화를 통한 산업 발전 및 고용 창출을 위해 해양수산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됐다.

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 활동 내용과 국내외 해운물류시장 현안에 대한 인터뷰 기사는 본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연극영화학부 박유진 학우, 2021년 제 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부문에 선정

본교 연극영화학부 학우들의 끼와 열정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이은 쾌거가 이뤄지고 있다. 영화영상전공 박유진(연영 17) 학우의 영화 〈여인과 사자〉가 2021년 제 22회 전주국제영화제 한국단편경쟁부문에 선정됐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와 함께 국내를 대표하는 3대 국제영화제 중 하나로 올해 총 993편의 영화가 출품돼 17편의 극영화가 선정됐다.

한편, 〈여인과 사자〉는 앞서 2020년 CJ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스토리업 프로젝트에도 선발돼 제작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온라인 시험(LMS) 유의사항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본교 온라인 시험(LMS)과 관련해 시험 전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온라인 시험(LMS) 유의사항

1. 컴퓨터 혹은 개인 노트북을 사용하여 시험 실시하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보다 안정적인 컴퓨터 및 개인 노트북을 사용해 시험에 응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전화나 SNS 등의 앱 알림 기능을 끄고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2. 퀴즈 및 과제 시험 제출 시 제출 버튼 누르기

퀴즈 및 과제 시험 제출 과정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저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인터넷 환경이 안정적인지 사전에 확인하기

카페, 대중교통, 야외 들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장소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적의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4. 시험 중 기타 유의사항

시험 중 시험과 관련 없는 행동 시,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시간 화상강의로 시험 진행 시, 안내를 듣도록 스피커를 켜도록 합니다. 시험 종료 후 먼저 퇴장할 경우 정답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으니 시험 시간에 맞게 퇴장하길 권장합니다.

2021년 1학기 예술대학 개강룩 행사

코로나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학우들을 위해 ‘A Roman Tist’ 예술대학 학생회에서는 자신의 개성을 뽐낼 개강룩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4월 12일(월)부터 15일(목)까지 진행되며 간접적으로 새 학기의 싱그러움을 담았다.

참여 방법은 자신의 개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개강룩을 입고 사진을 찍은 후, 센스있는 제목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예술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DM이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면 된다. 참여 방법은 이처럼 매우 간단하지만, 상품은 절대 소소하지 않다. 1등에게는 베스트 상으로 에어팟을, 2등에게는 인기상으로 버즈 플러스가 상품으로 증정된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손 하트를 하거나 장미를 들고 찍으면 가산점이 부여돼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자신의 개강룩을 멋있게 담은 사진은 학우들의 좋아요와 댓글이 많은 순서대로 순위가 나뉘게 된다. 사진을 제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마음에 드는 개강룩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것도 행사의 참여 방법 중 하나다. 이 때 좋아요 및 댓글로 행사에 참여한 학우에게는 10명 한정으로 롱커피 쿠폰이 지급된다.

개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교할 수 없는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이번 개강룩 행사에 학우들의 많은 참여가 있길 바란다.

글–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예술대학 제공

본교 영화영상전공 재학생, New York Movie Awards에서 수상

본교 영화영상전공 홍승기(연영 18) 학우의 단편영화 〈숨〉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New York Movie Awards에서 Best Fantasy Film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 영화는 Florence Film Awards의 Fantasy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던 작품으로 국내외 영화제에서 괄목할 성과를 내고 있다. 한편, 홍승기(연영 18) 학우는 편집을 맡았다.

단편영화 〈숨〉의 주인공 다빈은 아버지의 폭력을 하나의 일상으로 받아들인 채 살아가는 어린 소년이다. 그러던 어느 날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는 또 다른 아버지가 나타난다. 같은 모습이지만 자신에게 다른 행동을 취하는 두 아버지 사이에 서게 된다.

단편영화 제작·상영 플랫폼 씨네허브는 "우리의 내면에도 다양한 감정과 시련들이 묻혀 있고, 자라나고 있다. 타인에 의해 정원이 짓밟힐지라도 그 정원의 주인이 우리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며 연출 의도를 나타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부활절을 기념하며

지난 4월 2일(금)부터 16일(금)까지 '제19대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동행 신학대학'에서 부활절을 맞아 '너의 헌혈증이 보혈'이라는 행사를 진행했다. 부활절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남을 찬양하는 날로 기독교의 상징적인 행사 중 하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신학대학은 재학생에게 헌혈증 기부 참여를 독려했고,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하며 부활절을 맞이했다. 기부된 헌혈증은 수혈비용 감면을 위해 헌혈증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 가족들에게 지원돼 의미 있는 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를 개최한 신학대학 학생회 김영서(기독교 18) 학우는 "매년 부활절이 있는 4월에 계란을 나눠 전도행사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봤다"며 "학우들과 함께 기부 행사에 참여하며 기독교 절기 의미를 상기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직접 실천해 뿌듯함을 느꼈다. 앞으로도 이처럼 따뜻한 행사들이 본교에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글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사진 – 신학대학 제공

본교 지역사회협력단, "학생희망 빛과 소금 연극단" 운영사업 2년 연속 선정

본교 지역사회협력단 연극영화학부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의 "학생희망 빛과 소금 연극단"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지역사회협력단은 본 사업관련으로 2021년에 3천만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됐다.

학생희망 빛과 소금 연극단 사업은 안양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극단원 선발, 교육 및 정기공연 발표를 통한 연극, 뮤지컬, 영화 등의 예술 분야 인재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더불어 지역사회협력단은 교육부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기부 진로체험 우수기관으로서 지역사회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희망 빛과 소금 연극단은 앞으로 연극단원 오디션, 창작극 제작, 정기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소속 강지훈(해외인턴십), 최명훈(국내인턴십) 학우 "해수부 장관상 수상"

본교 해양수산부 – KMI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소속, 강지훈(동물 16) 학우와 최명훈(동물 14) 학우가 지난 2020년 1기 사업 결과, 각각 해외인턴십(네덜란드 STX) 부문 및 국내인턴십(한국 IEG) 부문 최우수자로 선정돼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해양수산부

이는 지난 2020년 국내 7개 해운물류 인력양성 선도대학으로 선정돼 1차 년도 사업 결과를 통해 이룬 성과로서 해당 사업은 2024년까지 5억의 국고보조가 확정돼 있으며, 사업 기간 5년 동안 매년 1억씩의 예산이 투입되는 명실상부한 본교 산학연계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기 사업단 모집은 올해 공고 예정이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자(졸업 2년 이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GMT 연구센터(중생관 524호, 031-467-8136)로 문의할 수 있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사진 – 해양수산부

SK 유퀴즈!

누구나 하나쯤 무언가에 진심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거움을 느끼곤 한다. 그래서 준비한 〈그 누구보다 ○○에 진심인 사람들〉 특집! 공을 차면서 즐거움을 얻고 각종 대회까지 휩쓴 '성결FC',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재미도 느끼는 'C.A.S'를 만나보도록 하자.

성결FC – 최장혁(체교 18) 학우

Q 성결FC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성결FC는 축구를 좋아하는 학우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입니다. 선수와 매니저로 구성돼 있고 축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며 축구에 대한 이해도와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 목표는 대회에 참가해 입상하는 것입니다.

Q 성결FC의 주요 활동을 설명해 주세요.

성결FC는 주 2회 정도 정기적인 운동을 하고, 1년에 2~3회 정도의 크고 작은 대학부 동아리 축구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대회를 나갈 때는 희망자에 한해 선수와 매니저가 참석하고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단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단계가 완화된다면 방역수칙을 지키며 운동도 하고 대회에도 참가하려고 합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2018년부터 동아리 활동을 하며 많은 경기를 뛰었고 기억나는 경기도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20년 11월에 진행된 중앙대학교와의 경기입니다. 대회 바로 전 중앙대학교와의 친선경기에서 1:0으로 졌었는데, 예선 때는 2:1로 이긴 경기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 출전했던 대회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대회는 어떤 대회였나요?

2019년 경기도 대학부 동아리 축구 대회 GUFA에서의 우승을 통해 갔던 KUFA라는 대회입니다. 각 권역 우승 팀끼리 맞붙는 대회에서 3회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 최근 들어 거둔 성적 중 가장 좋은 성적입니다.

Q 언제부터 축구에 대해 '진심'이게 됐나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축구에 흥미가 생겼고 그 당시 꿈이었던 프로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운동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지만, 현재는 다른 꿈을 꾸며 취미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축구에 진심이었던 것은 운동을 시작했던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Q 축구를 하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축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운동을 좋아했지만, 축구를 시작한 이후에 관심이 더 깊어졌습니다. 축구를 하면서 여러 기술들을 배웠고, 어떻게 하면 몸의 운동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운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Q 본인에게 축구란 무엇인가요?

축구가 없었더라면 체육교육과를 선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운동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축구란 '몸을 사용하면서 즐거움을 알게 해 준 첫 번째 스포츠'입니다.

C.A.S – 강석규(미소 19) 학우

Q C.A.S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C.A.S는 본교 유일 서브컬처에 관심 있는 학우들이 모인 동아리로 일본 애니메이션과 만화가 대표적이지만 게임, 모형 등 다양한 콘텐츠들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Q C.A.S 소모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그림 소모임과 일본어 소모임이 있습니다. 그림 소모임은 만화를 본 후 각자가 그린 그림을 두고 의견을 공유하는 모임이며, 일본어 소모임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일본어를 함께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Q 제일 처음 본 애니메이션은 무엇인가요?

레전더라 불리는 몬스터와 네 명의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인 '용의 전설 레전더'라는 애니메이션을 가장 처음 봤습니다. 하지만 저를 애니메이션에 빠지게 한 건 '건담 더블오'입니다. 친구의 추천으로 건담 관련 게임을 했는데, 그 게임의 공식 사이트에 있던 건담 애니 시리즈를 3일 만에 정주행 했던 기억이 납니다.

Q 언제부터 애니메이션에 '진심'이게 되었나요?

앞서 말했던 '건담 더블오'의 프라모델을 구매하면서부터 인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진심이 된 건 중학교 3학년으로 학교에서 '메카쿠시티 액터즈'라는 애니메이션을 본 뒤로 한동안 OST와 설정에 빠졌고 서울 코믹랜드 축제까지 가게 됐습니다.

Q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일 큰 변화는 지출입니다. 용돈으로 프라모델을 사고 다양한 굿즈를 모으기도 했으니까요. 그다음은 여가시간과 공부시간입니다. 고등학생 때 공부를 하고 나서 편의점에서 간식거리를 사와 새벽까지 애니메이션을 보고 잠드는 게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 생활은 고등학생 때 공부 동기의 40% 정도 차지할 만큼 의미 있었습니다.

Q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밌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추천합니다. 전쟁병기로 쓰이던 소녀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주는 대필가 자동수기인형이 되어 일어나는 일들을 옴니버스 식으로 풀어내는 애니메이션입니다. 넷플릭스에서도 방영하고 있으니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Q 본인에게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인가요?

저에게 애니메이션은 연결고리입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취미생활을 공유하면서 교우관계가 좋아졌고 지금까지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사진 – 성결FC, 네이버 영화

놀면 뭐하니?

2021학년도 학습마인드 향상 특강

무언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다졌지만 도중에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곤 한다. 그런데 과연 실패는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올까?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를 격려해 성취감을 누릴 수 있는 행동 전략은 없을까? 2021학년도 학습마인드 향상 특강을 통해 알아보자.

2021학년도 학습마인드 향상 특강은 교수학습지원센터가 주관한 특강으로 동기를 높이는 행동 전략을 알려주는 특강이다. 장한별 강사는 '자유인'이라는 단어를 내세우며 동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유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때 자유인은 자율성, 유능감, 인간관계의 줄임말이다.

억지로 시킨 일을 해야 할 때 의욕은 떨어진다. 자율적으로 선택해 시작했을 때 그 일에 더욱 몰입할 수 있다. 이때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난이도 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통해 자신을 통제하는 방법도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과거의 실패는 나의 부족으로 발생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패한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유능감을 갖기 위해선 과거의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준비하는 해결 중심의 생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한다. 아주 사소한 일이라 해도 작은 성취가 쌓이면 더 큰 자신감이 생긴다. 이를 기록해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낭비되는 시간을 파악해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특강을 들으면서 이전에 자격증을 따려고 했을 때가 생각났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무작정 인터넷 강의를 결제하고 혼자서 공부하려고 했다. 결국 여러 핑계를 대며 무계획적으로 공부한 결과 시험장에 갈 수 없었다. 특강 수강 후, 인간관계를 통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사람들과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공부하는 것이 내게 적합하다고 판단해 성결 스터디에 참여했다. 특강에서 배운 대로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지속적인 힘을 기를 수 있었고 날마다 정한 목표를 이루면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본 특강은 사이버캠퍼스에서 신청해 6월 18일까지 수강할 수 있고, 퀴즈 정답을 맞혀야 이수 조건이 완료된다. 졸업 필수 조건인 S-point도 얻을 수도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하길 바란다.

글 – 문예빈 기자 cagi77@sungkyul.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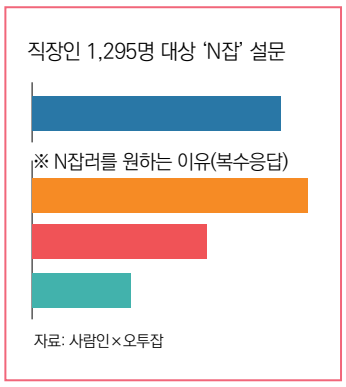
N잡의 시대

하나의 직장을 얻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는 사회 속에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이제는 직업이 하나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N잡러'라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번 취업면에서는 여러 개의 직업을 가졌다는 의미를 가진 N잡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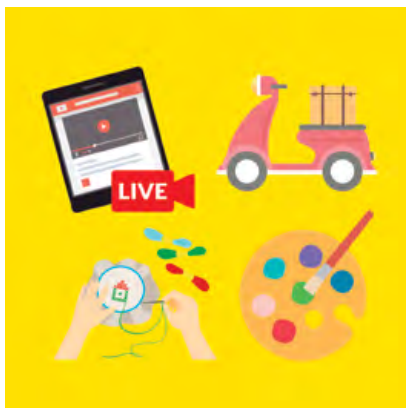
N잡의 시작

최근 많은 사람들이 N잡에 뛰어들기 시작했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대학생과 주부, 정년퇴직을 한 사람들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N잡'을 하게 됐을까?

2020년 취업포털 사람인과 재능마켓 오투잡이 직장인 1295명을 대상으로 'N잡'에 대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N잡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수입이 78.8%로 가장 많았으며,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서가 그 뒤를 따랐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가 하나의 직업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N잡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워라밸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탄생한 주 52시간 근무제도 많은 영향을 줬다. 이는 초과 노동이 불가피한 업계에 '탄력적 시간 근로제'를 만들게 했고, 정시 출·퇴근과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을 흐리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임금을 채우기 위해 혹은 자기계발이 가능한 부업을 시도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N잡의 종류



너도나도 실천하고 있는 N잡은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머물러 있다. 우선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유튜브와 배달이다. 자신의 삶 혹은 재능을 살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거나 배달의 민족의 배민커넥트 외에도 다양한 대행업체를 통해서 배달을 시작할 수 있다. 또한 오픈마켓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미 갖춰져 있는 대형 플랫폼에 입점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낮아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의 취미를 살려 캐릭터 이모티콘을 만들어보고, 직접 공예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우리 주변엔 생각지 못한 '일'들이 줄 서 있다. 별달리 떠오르는 것이 없다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N잡은 우리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로 구성돼 있으며, 어떠한 조건에 큰 구애를 받지 않고 의지만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다.

N잡의 미래

누구나 도전 가능한 만큼 N잡러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우리가 흔히 아는 투잡의 형태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후에는 쓰리잡을 넘어 더 많은 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업의 개념에서 벗어나 본업이 N개가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도전에 쉽게 생각하고 충분한 준비를 거치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닥치기 마련이다. 때문에 김나이 액셀러레이터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균형 있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명 유튜버 중 한 명인 대도서관은 크리에이터를 처음 시작했을 당시 직장 생활과 병행했다고 한다. 그만큼 N잡을 할 때는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한 토대가 잘 마련돼 있어야 하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계속해서 책임질 힘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에 가져야 할 행복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직업을 고려해서 준비한다. 그리고 속속히 등장하고 있는 N잡러들은 하나의 직업으로는 부족한 현시대를 고발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다른 시각으로 볼 땐 맹목적으로 하나의 직업을 바라보기보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다양한 일이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제 우리의 직장은 한 곳만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청년이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더 많은 장소로 나아가 다양한 일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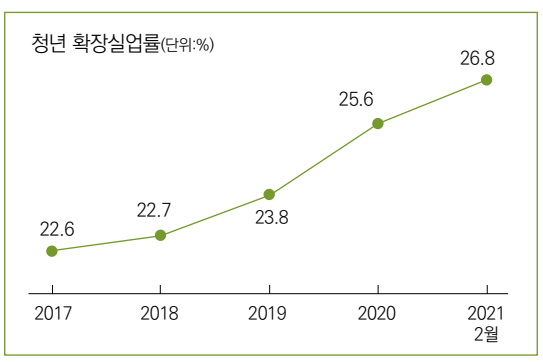
글/사진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참조] 조선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청년실업, 인공호흡이 필요해!

20대 청년이라면 매년 감소하는 취업률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취업률에 대해 아는 만큼 실업률 또한 알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 매년 감소하는 취업률과 반대로 증가하는 실업률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취업률이 취직한 사람의 비율이라면 실업률은 노동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인구 가운데 직업이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낮으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불경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불경기 속에서 코로나19라는 직격탄을 맞아버렸다. 그렇게 실업률은 앞서 예상할 수 있듯이 계속해서 증가율을 보였다.

통계로 알아보는 실업 현황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의 확장실업률[1]은 최근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까지 22%대를 벗어나지 않다가 2019년은 23%를 넘고, 2020년엔 25.6%를, 지난 2월엔 결국 26.8%로 최고치를 찍었다. 이러한 비율은 청년 중 4분의 1 이상이 실업자임을 의미했으며, 계속되는 취업난과 구직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상을 보여줬다. 또한 통계에서 제외된 사람 중 실업난 때문에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학업으로 빠진 사람들까지 합한다면 실제로는 더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 확장실업률: 실업률보다 넓은 범위의 실업 인구를 포함하는 지표로 '경제활동인구 + 잠재경제활동인구' 대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 + 실업자 + 잠재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나타낸다.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작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한 실업률의 원인으로 먼저 코로나19를 꼽을 수 있다. 감염 여파에 따라 고용 시장은 소극적으로 변했고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는 제일 큰 타격을 입었다. 제조업은 물론 일용직까지 감소세를 보이며 실업률의 수치를 올렸다. 최근 대기업 10곳 중 6곳은 대졸 신규 채용 계획이 없거나 미정이라는 소식을 알려 청년층 취업에 찬바람을 불러일으켰다. 노동 공급과 수요의 양극화도 고려해봐야 할 문제다. 고등교육자들이 넘쳐나 모두가 한 곳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분단된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 미래의 사회적 지위까지 결정해버려 높아지는 실업률에 박차를 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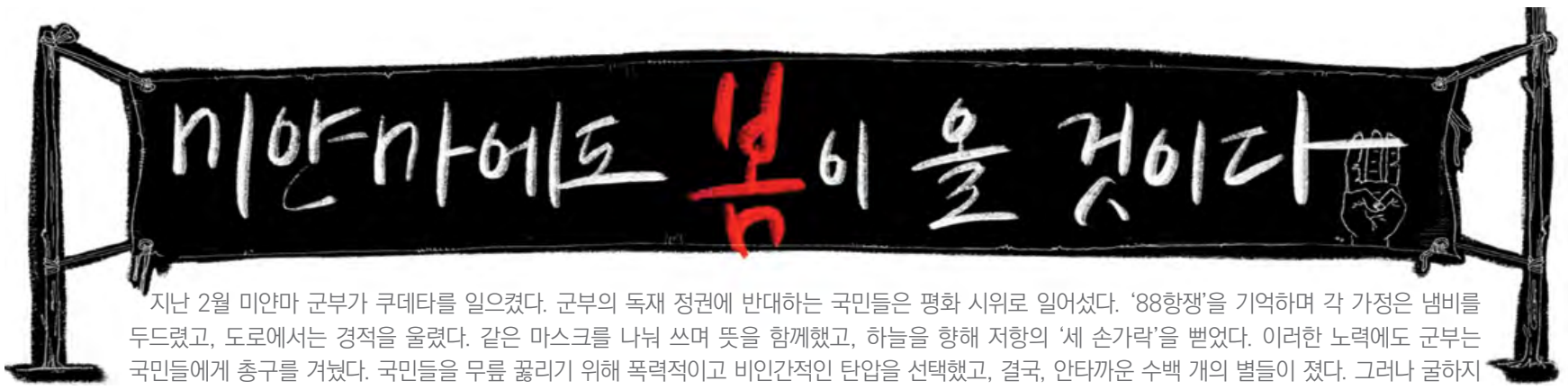
도대체 어떡해?

IMF 이후로 최악의 길을 걷고 있는 실업률은 특히 20대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원인들은 청년의 구직활동 기간을 늘리거나 포기하게 만들었고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악화시켰다. 한국은행은 '고용상황 악화가 신규 대졸자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보고서를 통해 청년층의 하향취업 문제를 꼬집었다. 그리고 이에 "단기적으로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경력개발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일자리 감소 현상 극복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직접 고용자가 됨으로써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와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비판이 섞여 나오고 있다. 근본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어지러운 사회에 지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만 같다. 그저 '청년' 뒤에 붙은 모든 '난'들의 돌파구가 하루빨리 생겨나길 바랄 뿐이다. N포세대라 불리는 20대들에게 언젠가는 N득세대라는 수식어가 붙는 날이 오기를 빌어본다.

글/사진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참조] 세계일보, 한겨레, 한국은행



지난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군부의 독재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평화 시위로 일어섰다. '88항쟁'을 기억하며 각 가정은 냄비를 두드렸고, 도로에서는 경적을 울렸다. 같은 마스크를 나눠 쓰며 뜻을 함께했고, 하늘을 향해 저항의 '세 손가락'을 뻗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군부는 국민들에게 총구를 겨눴다. 국민들을 무릎 꿇리기 위해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탄압을 선택했고, 결국, 안타까운 수백 개의 별들이 졌다. 그러나 굴하지 않는 미얀마의 국민들은 지금도 민주주의를 외치며 저항하고 있다. 또한, 군부의 총성도 멈추지 않았다.

피로 물든 장미꽃, 쓰러지지 않는 미얀마의 시위대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에서 가면을 쓴 시민들이 저항의 의미를 담은 세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다. AP 연합뉴스)

지난 2월 9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경찰이 쏜 총에 맞아 트웨 트웨 카잉(20)이 사망했다. 쿠데타 이후 첫 사망자였다.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시위대는 빨간 장미꽃을 군경의 가슴에 꽂았다. 전국 각 도시에서 수천, 수만 명이 군부의 쿠데타를 반하는 비무장, 비폭력 평화시위를 지속했다. 시위대의 비폭력 저항은 과거 여러 차례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인한 희생의 역사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무고한 국민의 죽음은 군부에게 그저 공포 정치의 필요악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얀마 현지 인권 단체 '정치범지원 연합'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에 따르면 지난 2월 쿠데타 이후부터 현재까지(4월 9일) 사망자는 무려 606명에 이른다. 또한 사망자 중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최소 48명이라고 밝혔다.

미얀마 군부는 통신과 교통을 차단했지만, 목숨을 건 시민들의 동영상과 CCTV 등의 영상이 SNS 통해 퍼지면서 미얀마 군경의 비인간적인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영상 속 군경의 모습은 전쟁을 연상케 했다. 미얀마 군부는 소총이나 경기관총, 기관총과 같은 화기를 넘어 수류탄, 유탄발사기 로켓추진수류탄(RPG)과 같은 중화기 공격까지 감행하고 있다. 영상을 본 미얀마 시민들은 "어떤 군대가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RPG를 사용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들은 군인들이 아니다. 테러를 가하는 범죄조직이다. 정의의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분노를 터트렸다.

미얀마 시위대는 결국 비폭력 시위에도 민간인 학살을 지속해온 군부를 향해 무장을 결심했다. 군경의 폭격에도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외쳤던 시민들에게 무장저항의 물결이 불기 시작한 것이다. 소수민족 청년들은 반정부 무장단체에 입대하고 있으며, 시위대는 저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사제무기를 손에 쥐기 시작했다. 미얀마 군경은 시민들의 무장 저항에 보복 공격을 가하고 있다.

"미얀마 구해달라" 유명 인사 실종…반정부 세력 공개수배까지

(▲지난 4월 1일 양곤의 처참한 길거리 AP 연합뉴스)

미얀마 군부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저명인사까지 체포하고 있다. 형법 505조 a항을 근거로 시위대에게 직간접적으로 반정부적 영향을 끼친 인물을 쫓는 것이다. 군부가 주장하는 형법 505조 a항은 군인과 경찰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의 성명, 기사, 소문 등을 제작, 반포, 유포할 경우 최대 3년 형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미얀마 현지 매체 '이라와디'는 8일 군경이 양곤 북다곤의 자택에서 모델 파잉 탁콘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114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던 파잉 탁콘은 인스타그램에 "미얀마를 구해달라"는 글과 함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사진을 올렸다.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된 상태이다. 그의 여동생은 "새벽 5시경 8대의 트럭을 타고 50여 명의 군인들이 강제 연행했다"고 전했다.

지난 6일에는 '자가나'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유명 코미디언 마웅 뚜라(60)도 군부에 체포됐다. 감독이자 배우이기도 한 뚜라는 과거 미얀마 군사정권을 앞장서 비판했고 여러 번 투옥되기도 했다.

앞서 군부는 관영매체 '글로벌 뉴라이트'에 '국가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뉴스를 유포해 형법 505조 a항에 따라 기소된 사람'이란 제목과 함께 60여 명의 명단을 공개수배 했다. 정치적 싹 자르기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우리는 미얀마를 보호하고 있을 뿐." 악랄한 미얀마 군부의 궤변

(▲시위에 참여한 파잉 탁곤)

미얀마 군부가 현재 내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 진압과 대규모 학살에 대한 책임을 전면부인했다. 지난 4월 8일 미얀마 군부는 전 세계 외신 중 유일하게 CNN의 취재에 응했다. 군 대변인 조 민 툰은 "우리의 행동은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유혈사태의 책임은 폭력적인 시위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일어난 부정 선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과 미성년자 총격에 대해 "시위대가 공무원들의 업무 집행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먼저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진압이 불가피했다"고 발언했다. "사상자가 발생했으나 모두 원칙에 맞춘 대응"이라는 것이다.

CNN 수석 국제 특파원 클라리사 와드 취재팀은 지난달 31일부터 6일까지 군경의 감시를 받으며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과 네피도를 취재했다. 자우 민 툰 대변인은 당시 미얀마에서 사망한 사람은 248명이며, 이 중 10명의 경찰과 6명의 군인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는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지원 연합과 현지 매체 미얀마 나우가 발표한 600명과는 괴리가 있는 수치다.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미얀마에서 쿠데타 이후 46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보도한 가운데, CNN은 죽은 아이들이 시위대 소속이 아닌 민간인이었으며 집이나 밖에서 놀고 있을 때 군인의 총에 살해당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보도 내용을 언급하자 대변인은 "시위대가 고의로 어린이들을 최전선에 세워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며 "집에 있는 아이가 총에 맞아 사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책임을 돌렸으며, CNN에게 "아이들을 겨냥해 총을 쐈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발했다.

취재팀은 현지인들과의 인터뷰를 원했으나 군부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막아서거나, 취재팀과 접촉했던 현지인을 체포했다. CNN은 그럼에도 취재팀과 대화를 하고자 하는 민간인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11명이 체포됐으며 CNN의 항의로 8명만이 풀려났다.

민주주의를 향한 미얀마의 오랜 열망

미얀마는 1948년 영국으로 독립 후 1962년 쿠데타를 통해 군사정부가 집권해왔다. 무려 53년간 군사정부가 독재를 해왔으나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얀마 국민들은 오랜 기간 이어진 군사정부의 독재를 환영하지 않았고, 독재정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리고 2015년 총선, 드디어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압승하면서 군부지배가 끝난다. 수치 고문은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민주화의 아이콘이다. 5년간의 임기 후 2020년 11월 총선에서도 NLD가 승리하게 되어 문민정부 2기를 지내게 되는 듯싶었으나, 군은 선거 직후부터 유권자 명부가 860만 명가량 실제와 차이가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증거불충분으로 군부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반발한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이후 정부 고위 인사들을 구금하고, 문민정부 인사들을 대거 교체했다. 또한 본인들이 만든 헌법으로 1년간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NLD의 실질적 지도자 아웅 산 수치를 감금했다. 군사정권 아래 15년 간 동안이나 가택연금을 당했던 아웅 산 수치는 이번에도 감금을 예상하고 구금 전 국민들에게 "쿠데타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고 NLD가 밝혔다. 기적적인 총선 승리로 민주 정부가 들어섰던 미얀마가 5년 만에 다시 군부 독재체제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아웅산 수치는 1990년 세계를 울린 연설을 한다. "문제는 권력이 아니라 공포입니다. 권력의 상실에 대한 공포야말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을 부패시킵니다. 또 권력의 괴롭힘에 대한 공포 때문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도 부패하게 됩니다. (중략) 자유, 민주 및 인권을 외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계속 투쟁해야 합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희생과 욕망의 부패를 막고 악의와 무지 및 공포에 저항하기 위해서 단호한 투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으로 미얀마의 시위대는 무력 진압에도 굳건히, 명분 없는 쿠데타에 저항하고 있다. 피로 얼룩진 두 달여간의 시간을 지켜보며 과거 우리에게 있었던 민주항쟁의 투지와 독립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도 짙게 서려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미얀마에도 꽃이 피고, 무고하게 다친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봄이 오길 소망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가슴 깊이 지지한다.

글 – 김민진 기자 zzzzzzzzzin@sungkyul.co.kr

사진 – 연합뉴스 / [참조] 연합뉴스, 경향신문, 국민일보

시리즈 기사 #2

동물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를 다뤘던 지난 호에 이어 이번에는 또 다른 약자를 대상으로 벌어지는 학대를 다뤄보려고 한다. 우리 주변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며 현재는 하나의 가족 또는 이웃으로 인식되고 있는 동물들이 그 대상이다. 말을 하지 못하는 동물들을 대상으로 우후죽순 벌어지는 무분별한 학대, 이제는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하다.

 # "나는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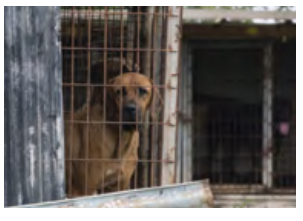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강아지의 사진이 공개됐다. '강아지 학대'라는 제목으로 해당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는 사진이 찍힌 곳은 충북 청주의 한 동네이며, 강아지의 주인인 젊은 여성이 술을 마신 뒤 강아지가 귀찮게 했다며 밖으로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아지가 창밖에 서있는 걸 보고 근처에 사는 작성자의 지인이 서둘러 해당 가정으로 방문했으나 불이 켜져 있는 등 인기척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강아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돼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럴 거면 왜 키우는가"라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이러한 동물 학대 논란은 매번 화두에 오르면서도 꾸준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지난 3월에는 차량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km

가 넘는 속도로 달려 죽게 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반대편 도로를 달리던 A씨는 해당 차량을 목격하고 바로 뒤쫓았다. 목줄에 묶인 개의 네 발은 보랏빛 피투성이에 그 형태가 뭉개져있었고, 해당 차량이 지나간 길 위에는 개가 흘린 피가 흥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4km를 넘게 끌려다니다 쓰러진 개가 결국 숨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운전자인 60대 남성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운전자는 개를 운동시키기 위해 차에 매달았다고 궤변을 늘어놨으나 민중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시속 80km 차에 목매 달린 개, 뭉개진 네 발 보랏빛 피투성이 된 동물 학대 엄중한 처벌 강화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고, 해당 청원은 올라온 지 3일 만에 11,244명의 동의를 얻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 "우리를 소비하지 말아주세요"

이처럼 동물 학대 이슈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물론 생명을 경시하고 학대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처벌치고는 그 수위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슈가 끊이지 않는 더욱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심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동물자유연대 장병진 회원모금팀장은 "동물을 입양한다고 표현하는 문화가 온전히 자리를 잡은 지금도 시장에서는 분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분양은 물건을 일컬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라며 물건 취급을 당하는 동물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동물자유연대 측에서는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꼬집으면서 이는 동물 학대 사건을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값만 치르면 동물을 학대했던 전과자가 또다시 동물을 사서 키울 수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는 동물 학대 이슈를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행스럽게도 사지 말고 입양하자는 슬로건이 유명해지며 펫숍 이용을 지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아직은 번화가만 가도 펫숍에서 멍하니 앉아있는 동물들을 볼 수 있다. 그 많은 새끼 동물들이 태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돌아봤을 때, 우리는 동물이 직접 원해서 임신한 경우가 과연 존재할지 궁금해해야 한다. 수요가 있기에 공급이 있다는 말을 곰곰이 되새기자. 생명을 사고파는 행위가



생명 경시 현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알고 실천해야 한다.

 # "이제는 같이 살아가요"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안이 상당히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다. 각자의 생활양식이 다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름을 이해하는 건 이미 충분히 훌륭한 가족을 이루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자칫하면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반려동물의 신체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가장 저지르기 쉬운 실수에 대해 대표적으로 구슬 급수기의 사용을 꼽을 수 있다. 스탠드 급수기라고도 불리는 구슬 급수기는 혀로 급수기 끝 구슬을 건드려야 겨우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을 찍어올려 생기는 물기둥을 만드는 고양이나 혀를 뒤로 말아 국자처럼 물을 떠마시는 강아지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청결한 상태의 물을 제공하고 싶은 반려인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결국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신부전증 ▲방광염 ▲당뇨 ▲요로결석 등의 건강 문제를 불러오게 되므로 넓은 그릇을 이용해 수시로 물을 갈아주는 방법을 권장한다.

반려인 1000만 시대,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같이 살아가기 위해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더 많이 공부하고 알아가야 한다. 특히 반려동물과 사람이 주인과 물건의 관계를 벗어나 하나의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앎'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동물자유연대, 국민일보

[참조] 중앙일보, 한겨레, 동물자유연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들끓던 오존층 파괴문제는 언제부턴가 들려오지 않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최근 오존층의 상태는 어떨까? 이번 호에서는 시들어버린 관심 속에서도 들려오는 오존층의 두 가지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

오존층이란 성층권 내 25~30km 부근에 밀집돼있는 오존의 층을 의미하며, 인체에 유해한 자외선 방사능을 흡수함으로써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오존층은 1980년부터 4%씩 감소해 오존홀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2016년 남극 상공 오존층이 조금씩 회복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2020년엔 극소용돌이로 생겼던 북극의 오존홀 역시 완전히 사라졌음이 알려졌다. 이러한 회복 현상은 자연적인 부분도 있지만 1987년에 맺은 '몬트리올 의정서' 환경협약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주원인이었던 프레온가스(CFC) 외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전면 금지함으로써 파괴 물질의 양이 약 11% 감소세를 보였고 덕분에 오존층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완전한 회복까지 희망해볼 수 있었지만 2018년 남극에 존재하던 오존홀의 크기가 다시 커지면서 또 다른 복병을 발견했다. 바로 클로로포름(CHCl3)이라는 물질이다. 이 역시 프레온과 마찬가지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나 대부분 자연에서 배출되고 공기 중의 수명이 비교적 짧아 협약을 통한 규제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팀의 연구 결과, 2010년 전까지만 해도 한해 27만 1천t가량 배출됐던 것이 2015년엔 32만 4천t이나 배출돼 연평균 3.5%씩 급증했다. 배출량의 원인은 중국 동부지역의 공장, 즉 인간 활동으로 밝혀졌으며 이를 계기로 클로로포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회복과 파괴를 반복하고 있는 오존층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6년 몬트리올 의정서 당사국 제28차 회의에 참여한 전 세계 197개 국가가 이산화탄소보다 더 심각한 영향을 주는 수소불화탄소(HFC) 사용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에 국제공동연구팀은 프레온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무분별하게 배출하는 중국에 대해 감시 연구를 진행하며 생산을 감소시켰다.

남극 상공 오존층이 회복되고 있다고 해서 모든 곳이 괜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사람들이 밀집돼있는 중위도는 여전히 위험 수준에 있다. 회복 소식으로 안일해지는 순간 오존층은 계속 파괴될 것이며, 오존홀이 존재하는 이상 지구온난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기에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필수적이다. 이번 '이크, 에코!'를 통해 오존층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상기해주기를 바란다.

글/사진 – 김은서 기자 yuu456@sungkyul.ac.kr

[참조] 동아사이언스, 연합뉴스, SBS

우주산업, 적자라고 누가 그래?

"20년 뒤에는 여름휴가를 달로 갈 거야!"라고 했던 순수한 시절이 기억난다. 조금 더 크고서는 과연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꿨다고 말했으나 그로부터 n 년 뒤, 스페이스X는 2020년 5월 30일에 민간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게 된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비용과 동시에 사업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이유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우주산업, 드디어 오명을 벗고 사람들 앞에 나설 차례가 왔다.

'일론 머스크', 그는 누구인가?

전기차 전문 업체 '테슬라'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한 번쯤은 '일론 머스크'를 들어봤을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그는 페이팔의 창시자로서, 이미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이룬 미국의 기업가이다. 테슬라 외에도 ▲스페이스X ▲솔라시티의 CEO를 맡고 있는 그가 현재 우주 산업 분야에서 각광받게 된 것은 지난 5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민간기업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보내고부터다. 일반인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테슬라마저 파산 위기에 처할 정도로 리스크가 컸음에도 포기하지 않은 스페이스X는 2002년에 처음 설립된 미국의 항공 우주 장비 제조 · 생산 및 우주 수송 회사로, 우주로의 수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화성을 콜로니 행성(식민지 행성)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설립됐다. 그런데 여기서 기존에 우주산업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의문점이 하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은 골디락스 존에 들어와 있는 지구뿐이기 때문이다. 지구와 화성 간의 거리는 두 번째 고려 사항으로 넘기더라도 화성의 대기 구성은 지구보다는 오히려 금성과 유사한 상태인데 어떻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으로 만들겠다는 걸까?

사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테라포밍'이라는 이름으로 꽤 오래전부터 불려오고 있었다. 테라포밍은 지구가 아닌 행성 또는 위성 등의 천체의 환경을 지구의 ▲대기 ▲온도 ▲생태계와 비슷하게 바꿔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의미한다. 1942년 미국의 SF 작가 잭 윌리엄스의 충돌 궤도라는 소설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그 시작은 공상과학소설일 뿐이었다. 하지만 단지 소설에서 그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미국의 촉망 받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공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칼 세이건은 1973년에 이카루스지에 게재된 〈Planetary Engineering on Mars〉에서 화성에 대한 테라포밍을 제안했고, 그로부터 3년 뒤 NASA는 화성의 테라포밍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화성을 거주 가능한 행성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그 존재를 널리 알렸다. 지구를 대신할 또 다른 원시 지구를 찾은 셈이다.

이것은 데자뷔...?

그러나 화성의 테라포밍은 아직 시작도 전인 준비단계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미 오래전에 핵 대류가 멈춘 화성은 표면의 40%를 덮는 제한적인 자기권을 유지하고 있어 외부로부터 오는 유해 물질을 차단하기 어렵고, 약한 대기로 인해 주기적으로 대기 구성에 필요한 기체들을 공급해야 한다는 문제점만으로도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경제적 자원의 부족 ▲긴 소요시간 ▲실용성 ▲윤리적 문제 ▲정치적 문제로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사람을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다는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이처럼 아직은 가깝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고 해도 화성의 테라포밍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해 주는 영화가 있다. 바로 2015년 개봉한 소설 원작의 〈마션〉이라는 영화다. 나사 소속 우주인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가 화성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다가 폭풍으로 인해 혼자 화성에 남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했던 와트니는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순간순간 기지를 발휘하며 화성에서의 나날들을 이어간다. 직접 감자를 재배하고, 남아있는 자원을 이용해 물을 만들어내는 등 화성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하나 싶었던 그는 패스파인더를 찾아내 지구와 통신에 성공한다. 결국 팀과 협력해 무사히 화성을 탈출한

그는 NASA의 우주인 훈련 교관이 됐고, 질문이 있냐는 주인공의 말에 학생 모두가 손을 들며 영화가 끝난다. NASA가 직접 영화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묘사되는 부분들이 원작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로튼 토마토 지수는 91%를 기록하며 호평을 받았다.

물론 영화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등의 작은 부분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화성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바꾼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라포밍이라고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척박한 토양 환경 속에서도 자라나는 작물은 그 일부 과정을 보여준 것과 다름없고, 오히려 미래의 화성에 대해 상상해볼 수 있도록 자극을 줬다는 평이다.

우주산업, 로켓이 다가 아니야

오는 9월 우주 관광에 나설 세계 최초 민간인 우주여행 승객 명단을 발표한 스페이스X에 이어,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와 중국이 잇따라 화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는 등 각국에서도 우주산업에 불이 붙었다. NASA의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도 꾸준히 탐사 소식을 전해오고 있으며, 오는 11일에는 이에 탑재된 드론 '인제뉴어티'가 화성에서 첫 시험 비행을 한다. 한국에서는 다가오는 10월에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인공위성인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이다. 그런데 전 세계와 많은 기업들이 굳이 우주에 주목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우선 현재 상황을 고려하려면 지난 50년 동안 우주산업의 개발이 어떤 이유에서 진행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과거의 우주산업은 각국의 체제 경쟁을 위한 개발이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개발 구조는 민간 기업이 고위험과 고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뛰어들 여건이 되지 못했다. 이러한 과거처럼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 시대를 올드 스페이스(Old space)라고 부른다. 그와 반대로 현재처럼 민간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우주 사업을 하는 시대는 뉴 스페이스(New space)라고 한다. 우리가 뉴 스페이스에 도달할 수 있었던 건 올드 스페이스 시대에 했던 체제 경쟁이 국가 간의 싸움을 지양하는 현대에는 더이상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뉴 스페이스에 넘어와서는 지구 외의 공간에서 인류가 생존하는 것이 새로운 목표가 됐고, ▲비용 ▲기술 ▲연구 인력이 목표 실행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며 민간기업의 기술을 우주에서 활용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특히 발사체 개발에 대해 획기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면서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3D 프린팅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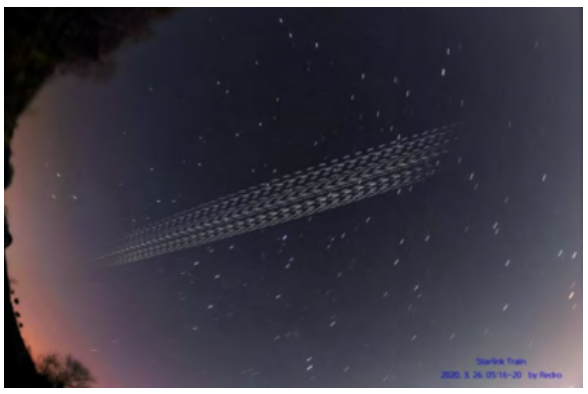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 부품 제작부터 우주선 조립까지의 과정에서 막대한 노동력과 천문학적 비용이 발생했지만 뉴 스페이스 시대에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로켓 엔진의 연소기, 발사체의 탱크 등 부품부터 로켓까지 제작할 수 있게 되면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잡을 수 있었다. 나사의 우주선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해 만들었을 땐 우주선 한 대에 약 5660억 원의 제작 비용이 들어가지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약 135억 원으로 제작이 가능해진다. 물론 값이 저렴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존에 들어가던 천문학적인 비용에 비하면 약 40배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2년이 걸리던 제작 기간도 약 두 달로 대폭 축소되며 시간 절약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

》로켓 재사용 기술

한 번 발사하면 수명이 다하는 올드 스페이스 시대의 로켓과 다르게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로켓을 재사용하며 그 활용 가치를 더욱 높게 만들었다. 제작한 발사체가 재활용됨에 따라 우주 발사 비용 및 시간 또한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이처럼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우주선과 발사체는 우주산업에서 가히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우주로 나아간다는 물리적인 의미를 뛰어넘어 우주산업은 생각보다 더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고 있다.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을 때 광공해와 미세먼지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는 몇 개의 별들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우리 삶에서 크게 드러나지 않아 망각할 수 있겠으나 날씨를 예측하는 것과 자율 주행 드론 또는 자동차가 개발되는 것이 인공위성이 보내오는 데이터 덕분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주산업에서 위성 데이터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고, 일론 머스크 또한 위성 데이터의 중요성을 진작 인지하고 그와 관련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



스페이스X가 추진하는 전 지구적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사업으로, 광범위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됐다. 스타링크 위성군은 수천 개의 초소형 위성으로 구성되며, 지구 저궤도에 배치돼 지상 수신기와 함께 작동한다.

우주산업의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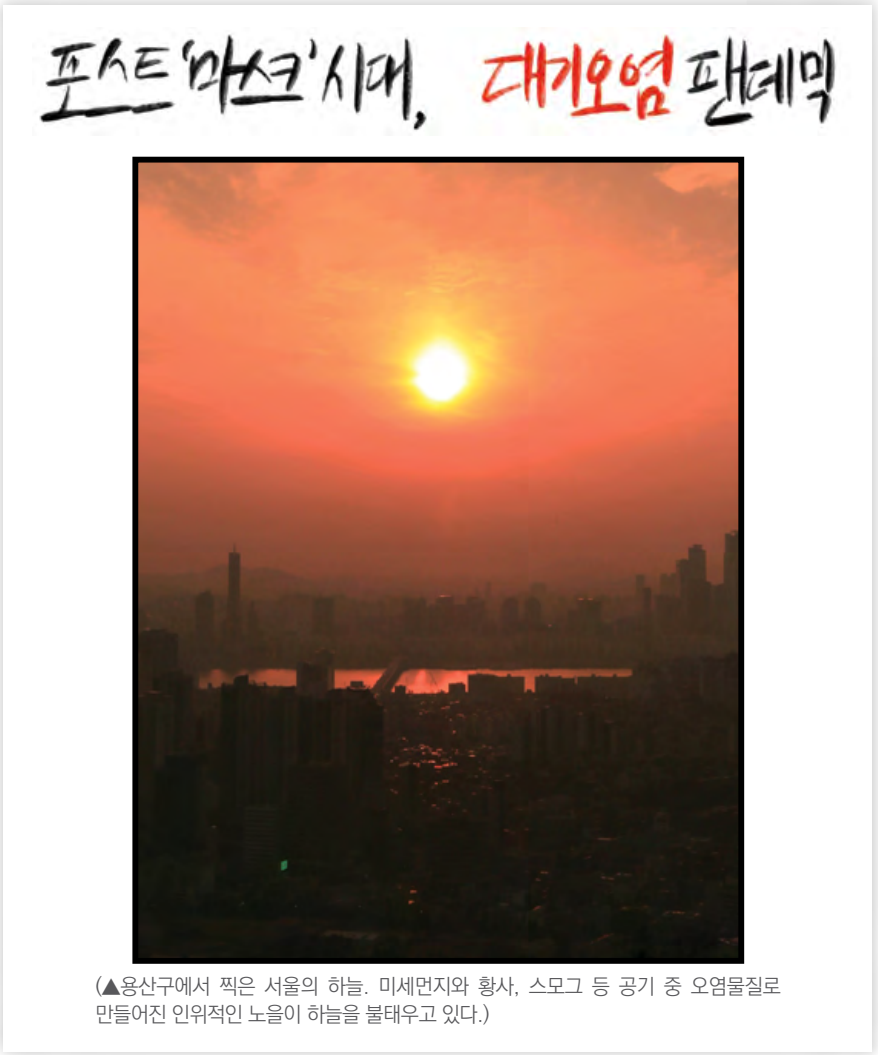
다양한 분야로 뻗어가는 우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인류의 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위성이 우리가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빠르게 제공해 주고, 인류의 우주 진출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지구만을 바라보는 것보다 직접 앞길을 개척해나가는 항로가 된다. 그러나 현재는 발달하는 우주산업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위 사진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허큘러스 별자리에 있는 구상성단 M13을 관측하면서 스타링크 위성이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스타링크 위성군은 일출과 일몰 전후 지구 그림자로 들어오기 전까지 약 2시간 사이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관측되는데 위 사진에서는 저녁 9시를 넘어선 시각에 다수의 스타링크 위성들이 밝게 관측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도리어 천문학계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천문학 중에서도 천체를 관측하고 이를 사진으로 남겨야 하는 관측 천문학은 학문의 특성상 위성이 증가할수록 학문 탐구에 어려움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기업에서도 위성의 반사율을 낮추는 도료 코팅과 반사방지 패널 등을 장착한 바이저샛을 발사했지만 이미 발사된 다른 위성들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지상 망원경을 이용한 천체관측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국제천문연맹은 군집 위성 전파 전송 대역이 전파천문학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주파수와 중첩되어 전파망원경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는 인공위성 밝기와 주파수 대역 등에 대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이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유엔 우주 공간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원회(COPUOS) 등을 통해 군집 위성이 천체 관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경각심을 높이며 인류가 지속적으로 우주를 바라보고 연구할 수 있도록 천문학계와 우주산업체들은 공존을 모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산업이 발전한다는 것은 인류가 오늘보다 살기 좋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것임을 이해한다. 그러나 산업발전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가는 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학문계가 피해를 보는 일이 우후죽순 증가할 것이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발전이 우리에게 되려 피해가 되어 돌아와서는 안 된다. 이상적인 산업의 발전은 더 나은 학문의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을 뒷받침해주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과도한 발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행성과 인류에게 감당하지 못할 딜레마를 안겨주는 것임을 상기하기 바란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사진 – 한국천문연구원, 국민일보, SBS, 전자신문
[참조] 한국천문연구원, 국민일보, 동아사이언스, SBS

사진기획



(▲용산구에서 찍은 서울의 하늘. 미세먼지와 황사, 스모그 등 공기 중 오염물질로 만들어진 인위적인 노을이 하늘을 불태우고 있다.)

마스크는 현대인의 얼굴이 됐다. 과거 마스크가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다. 지금은 전염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 됐지만, 호흡기 질병이 있거나 기관지가 약한 약자에게는 진작부터 외출 필수품이었다.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마다, 목에서 느껴지는 칼칼함 때문에 고생해왔던 필자 또한 마스크를 이미 구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스크 사재기나 요일제에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바이러스와 대기오염, 중국발 황사까지. 현대 사회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막스플랑크연구소가 주축인 독일 연구진이 유럽심장학회가 발행하는 '심혈관 연구'(Cardiovascular Research) 저널 3월 3일 치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대기 오염은 한 해 880만 명의 조기 사망자를 유발(2015년 기준)한다. 세계보건기구 (WHO) 또한 전 세계인의 기대수명을 2.9년 단축시킨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대기 오염에 대한 정책과 경각심은 미비한 게 현실이다.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때가 왔다. 보이지 않는 적은 미세먼지를 실어 나르는 편서풍인가? 아니면 대기 오염에 무책임한 인간의 무지함인가? 이제는 전쟁이 아니라 반성이 필요한 순간, 가면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글 – 김민진 기자 zzzzzzzzzin@sungkyul.co.kr
사진 – 최희원 / [참조] 한겨레

우리가 직접 맛보고 정했다: 로제 떡볶이 서열

집돌이, 집순이가 되어 집밥보다 배달 음식을 더 선호하는 요즘. 배달 음식을 보다 확실하게 즐길 수 있는 꿀팁 및 추천 메뉴를 공유해보자. 음식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그날을 위하여!

상큼한 토마토와 부드러운 크림의 조합! 로제 소스에 퐁당 빠진 떡볶이가 우리 앞에 등장했다. 배달 앱 VIP가 직접 맛보고 정한 로제 떡볶이 서열, 대망의 1위는?!

BEST 1 배떡-로제 떡볶이 ★★★★★

가격 : 1-2인 9,000원, 3-4인 17,000원
맵기 : 순한 맛-보통맛-매콤한 맛-매운맛-아주매운맛

로제 떡볶이의 선두주자인 만큼 꾸덕꾸덕하고 부드러운 소스가 배떡의 최고 장점이다. 또한 부들부들한 밀떡의 식감도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로제의 향과 맛이 꽤나 강해 느끼한 음식을 잘 못 먹는 독자에겐 보통맛 이상을 추천한다. 신라면도 매워하는 필자에게 순한 맛은 부담스럽지 않았기에 매운 음식을 못 먹는 독자에게 이를 적극 추천한다.

♣ TIP : 누들밀떡 + 분모자 or 중국당면 + 날치알밥의 조합은 극락을 느낄 수 있다!

BEST 2 삼첩 분식-로제 떡볶이 ★★★★☆

가격 : 단품(맛감자 포함) 10,900원, 대형세트 21,900원
맵기 : 안쓰읍(0단계)-쓰읍(1단계)-쓰으읍(2단계)-쓰으으읍(3단계)

로제 떡볶이계의 1티어라고 불리는 곳답게 밀떡임에도 불구하고 로제 소스가 잘 베여있다. 배떡에 비해 떡볶이라는 느낌이 강하며 로제 맛은 조금 약한 편이기에 보다 담백한 맛을 원하는 독자에게 추천한다. 1단계인 '쓰읍'맛의 경우 신라면 혹은 그 이상의 맵기이니 참고하길 바란다. 추가로 떡과 어묵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 TIP : 중국당면 + 누드순대 추가 잊지 말기. 맛감자를 섞어 먹으면 신세계가 펼쳐진다!

BEST 3 동대문 엽기 떡볶이-엽기로제떡볶이 ★★★☆☆

가격 : 3-4인 16,000원
맵기 : 착한 맛-오리지널

떡볶이의 원조로 불리는 엽기 떡볶이가 필자에겐 로제 떡볶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믿고 먹는 엽기 떡볶이인 만큼 맛은 보장된다. 로제 맛보다 매콤한 맛을 강조해 기존 엽기 떡볶이에 크림을 추가한 맛을 느껴볼 수 있다. 깔끔한 로제 떡볶이를 원한다면 엽기 로제 떡볶이를 강력 추천한다.

♣ TIP : 베이컨 + 중국당면 추가는 필수. 다음 날 우유와 생크림을 넣고 데워 먹으면 처음보다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로제 떡볶이의 서열을 나열해봤다. 필자의 주관적인 입맛과 의견이 잘 들어맞았길 바라며, 브랜드별 꿀팁을 참고해 로제 떡볶이를 다채롭게 즐겨 보면 본인에게 딱 맞는 레시피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 사진 – 해당 업체 메인 홈페이지

구해줘, 맞춤법!

최근 사람들은 글보다 영상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을 선호한다. 빠른 시간 안에 전하고자 하는 내용에 소리나 이미지를 더해 강렬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영상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맞춤법에 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영상 속 글귀에서도 잘 못 표시할 만큼 헷갈리지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정확한 표현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되요 VS 돼요

'나 어떡해야 돼요?'

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포스터 문구에서 '나 어떡해야 되요?'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틀리고 헷갈려 하는 표현법 중 하나가 포함된 문장이다. '되'는 '되다'의 어간으로, 용언의 어간 뒤에는 '-요'라는 보조사가 바로 붙을 수 없다. 따라서 '되어'가 줄어든 형태인 '돼'를 사용해 '돼요?'라고 표기해야 한다. 그리고 문장에 '하'를 넣어 자연스러우면 '되'를 사용하고 '해'를 넣었을 때 문장이 자연스러우면 '돼'를 사용하면 옳은 표현법이 되는 쉬운 구분법도 있다. 앞으로 헷갈릴 때는 '되'가 들어가야 하는지, '되어'를 줄인 '돼'가 들어가야 하는지 구분하여 올바른 표현법을 사용하길 바란다.

피로회복 VS 피로해소

'나는 피로해소를 위해 비타민을 먹었다'

'피로회복'은 비타민이나 건강 음료 광고에서 자주 등장해 사람들에게 매우 친밀한 단어이다. 하지만 이가 틀린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피로회복의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면 '피곤한 상태로 되돌아가다'라는 뜻이다. 그러나 피로는 회복이 아닌 제거의 대상이다. 따라서 피로가 사라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피로회복'이 아닌 '피로해소'를 사용해야 한다.

대노 VS 대로

'나는 지금 극대로 상태야'

화난 상황에서 사람들은 '극대노'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행어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쓴 단어가 잘못된 표현이라는 사실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것이다. 한글 맞춤법 제52항에 따르면 '한자어에서 본음으로도 나고 속음으로도 나는 것은 각각 그 소리에 따라 적는다'라고 명시돼있다. 쉽게 설명하면, 모음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속음을, 받침으로 끝나는 단어 뒤에는 본음을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법이다. 대로에서 로(怒)는 속음이 로, 본음이 노이다. 따라서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속음인 '로'를 써서 대노가 아닌 대로를 써야 맞는 표현이다. 앞으로 유행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을 익혀 명료하게 사용한다면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방송 매체는 접근성이 쉬워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정보의 다양성을 안겨 준다. 그러나 우리는 무작정 매체 속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분별력을 갖고 정확히 파악해서 올바른 정보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 매체 속 정보를 분석하고 이용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갖춰야 한다. 지금부터 조금씩 능력을 키워 정확한 정보를 사용하려 노력한다면 개인 역량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올바른 한글 사용에 효과적인 기대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참조] 국립국어원, 네이버 지식백과

슬기로운 문화생활

wise culture

음악

꿈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다 : 롤린

위문열차가 실어 온 역주행과 동시에 국민의 관심과 응원을 한 번에 받게 된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가수가 팬에게, 팬이 가수에게 노래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다.

노래 롤린 (Rollin')
가수 브레이브걸스(Brave Girls)
발매 2017.03.07

 # '위문열차'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

데뷔한지 10년, 발매하고 4년 끝에 이름을 알리게 된 브레이브걸스의 '롤린'. 이는 '위문열차'에서 시작됐다. 2021년 2월 23일, 유튜브 채널 비디터가 올린 롤린 댓글 모음 영상이 화제가 됐고, 멜론 차트 100위 진입에 이어 27일, 역주행 단 3일 만에 벅스 실시간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확실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영상의 무대 배경이다. 영상 속 브레이브걸스는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해당 부대에 가서 직접 공연을 하는 위문공연을 수도 없이 다녔고 그녀들의 노력은 군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까지 울렸다.

 # "우리가 도와주자"

브레이브걸스가 공식적으로 위문 공연을 간 곳은 약 60곳으로, 비공식 공연을 포함하면 위문 공연은 80여 곳이 넘는다. 출연료를 받지 않지만 노래 한두 곡 부를 공연을 위해 그녀들은 1박 2일 배를 타고 '연평도' 혹은 '백령도'로 향하기도 했다. 섬 안에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을 위해, 자신들의 꿈을 위해 그녀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며 무대에 진심으로 임했다. 이러한 모습에 감동한 군인들은 더욱 뜨겁게 응원했고, 그 응원에 브레이브걸스는 한 줄기의 빛을 보았다. 과거의 위문 공연에서 힘을 얻었던 군인들은 다 같이 외쳤다. "우리가 도와주자", "우리 차례야"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던 그 시절을 회상하며 그들은 군번과 함께 희망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빠르게 전파됐으며 현재 이 자리까지 오는 데 큰 발판이 돼줬다.

 # 위기에 놓인 모든 이들에게

리더 민영 : "팀에 대한 정리를 결심하고 만나기로 한 수요일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었어요"(더글 인터뷰 中)

오랜 시간 무명의 길을 걸어온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실 그들은 역주행 하루 전, 팀 해체에 대한 결심을 내리고 회사 대표에게 긴 장문의 글을 남겼다. 또한 자격증 공부를 하고, 일자리를 알아보는 등 오랜 시간 달려온 꿈을 포기하고 삶에 대해 고민하며 방황했다. 그러나 그들의 해체를 논의하기로 한 당일에 찾아온 것은 '역주행'이라는 새로운 기회였다. 이 역주행은 시작에 불과했다. 각종 예능, 인터뷰 등을 통해 무명에서 '국민이 응원하는 그룹'이라는 타이틀을 지니게 됐다. 만약 당신 또한 위기 속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다면 지금 잡고 있는 끈이 얄팍할지라도 놓치지 마라. 언젠가 당신에게 가장 단단한 나무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참조] 네이버 뮤직, 디글

드라마

나이와 경험은 비례하지 않는다.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면 괜찮아질까? 인간은 누구나 고민하고 방황하며 끝없이 나아가는 존재이다. 이번 호에서는 서른 살 세 여자의 일상을 통해 성장을 보여주는 코믹 드라마 '멜로가 체질'을 소개해보려 한다.

제목 멜로가 체질
편성 JTBC 2019.08.09. ~ 2019.09.28. (16부작)
등장인물 천우희, 전여빈, 한지은, 안재홍 외

 # 어느 누구 하나 범상치 않은 등장인물

보조 작가에서 시작해 드라마 속에서 또 다른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 '진주', 이러한 진주와 일로부터 시작된 사랑을 키우는 '범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잔잔하지만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다큐 감독 '은정', 이런 그녀의 곁을 묵묵히 지켜주며 동성애자의 길을 걷고 있는 그녀의 친동생 '효봉', 혼자 여덟 살의 아이를 키우는 극강의 워킹맘 '한주', 훌륭한 사수 한주에게 위로를 전하고 위로를 얻는 '재훈', 어리숙해 보이지만 솔직한 표현으로 진심을 전달할 줄 아는 '주빈'까지!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들이 서로 얽히고설키며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서른 살의 여자들 '진주', '은정', '한주'의 우정부터 사랑, 가치관까지 그들의 삶을 드라마 한 편에 담았다.

 # 고요하지만 편안하게 들려주는 이야기

대사, 인물 전부 최고지만 이 드라마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연출'이다. 5화의 한 장면 중 정혜정 작가가 "내 작품이 잘 익힌 고기라면, 진주 거는 날 거지 날 거"라는 대사와 동시에 생선회를 먹고, 보조 작가인 진주는 잘 익은 삼겹살을 먹는다. 이는 보조 작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연출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대사를 연출로 하여금 주목시킨다. 또한, 매 회마다 에피소드가 존재해 주어진 시간 동안 함께 고민하고 자유로이 이야기를 나누며 끝이 난다. 다양한 색채를 통해 무거울 수 있는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나가는 드라마의 스토리텔링은 장면에 더욱 몰입하게 만든다.

 # 내가 뽑은 명장면 : "나 힘들어, 안아줘"

2년 전,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을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한순간에 떠나보낸 '은정'. 이후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하는 줄 알았으나 그녀는 자해를 시도한다. 2년 넘게 환영을 보며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사랑하는 이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을 곁에서 묵묵히 바라만 보고, 빈 공간에서 대화를 나눠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녀의 친구들 '진주'와 '한주', 그리고 하나뿐인 동생 '효봉'. 어느 날 은정은 그들의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나 힘들어, 안아줘. 너 희한테 하는 말이야" 2년 만에 아픔을 인정하고 무너지기로 결심한 그녀의 행동은 모두를 울렸다. 자신의 상처를 꺼낼 수 있다는 것은 치유와 성장의 가장 첫 단계가 아닐까 감히 생각해본다. 아픔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또한 용기임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우리의 말을 대변해주는 듯한 은정의 말 한마디는 시청자를 위로하며 큰 힘이 돼줬다.

드라마는 단편적인 모습만이 아닌 사랑, 우정, 아픔까지 일상에서 한 번쯤은 누구나 겪어봤을 주제에 대해 위로를 전달한다. 또한 사람과 그 관계에 대해 미처 꺼내지 못한 무거운 이야기를 짙게 풀어낸다. 나이가 경험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자신의 나이 한 살 한 살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자신의 나이가 어색하게 느껴질 때 위로를 받고 싶다면 '멜로가 체질'로 힐링하길 바란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포스터

무엇보다 강력한 문화의 힘

각 나라의 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와 삶의 터전을 보여준다. 그중에서도 고유한 전통 의복은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즉각적으로 시각적인 측면에서 보여주는 매개체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인 한복을 중국이 자국의 전통의상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한복에 대해 소개하며 각국의 전통 의복과 전통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한복의 우수성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은 각종 고구려의 벽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최소 삼국시대부터 입기 시작한 옷으로 지형 및 기후의 영향을 받아 나라의 특성별로 구성과 형태가 조금씩 달랐다. 고려시대 때는 몽골풍의 유행으로 저고리가 짧아지는 특징을 보였고, 조선시대 때 현대 한복이 정형화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복을 오래전부터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19년 유관순 열사와 함께 3·1 만세운동을 했던 이들과 1950년 북한군 탱크를 막기 위해 침략에 맞서 싸운 의용군 모두 한복을 입고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 즉, 한복은 한국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자 세계에서 가장 긴 1600년의 의복 역사가 있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전통 의상이다.

한복은 ▲치마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조끼 ▲마고자로 구성돼있으며, 예복과 평상복, 계절과 성별의 다른 구성으로 자연환경에 알맞게 정착된 의복이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 색상인 오방색을 사용해 화려하면서도 품위 있는 디자인을 만들었고, 직선과 곡선을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활용해 한복의 멋을 완성했다. 또한, 한복은 눈에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뛰어난 가치를 자랑한다. 체형이 변해도 쉽게 고쳐 입을 수 있고, 옷의 품을 넉넉하게 하여 활동성도 높이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게 만들었다. 이런 한복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다른 국가에게까지 외형의 미와 실용성을 모두 잡은 의복으로 칭송받고 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의복, 한복

한국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며 한복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또한 늘어났다. 특히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킹덤', '이태원 클라스'등 한복이 등장한 드라마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아이돌이 무대의상으로 한복을 입고 진행한 무대가 세계적인 이슈를 낳으며 한복에 대한 이목이 더 집중됐다.

한복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과 애정은 한국 전체에 대한 호기심과 관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선 외국인들을 위한 한복 사진 공모전이 열리며 경복궁과 창덕궁 등 궁 방문객이 증가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한복에 대한 관심은 궁의 아름다움을 거쳐 한국의 역사에 관한 호기심에 다다라 한국사와 한글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한복의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체험하고자 만든 생활한복이 한국인은 물론 외국인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며 생활한복의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한복은 전통 의복의 개념을 넘어 점차 입는 인원이 많아지는 평상복이 됐다. 이러한 한복의 우수성을 유지하고 더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는 한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한다.

세계 속 다양한 전통 의상

해외여행을 가면 대부분 여행지의 전통 의상을 입거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에 방문하는 일이 여행 코스에 포함돼있다. 각 나라의 전통 의상은 문화 양식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징이 뚜렷한 다른 국가의 전통 의상에 대해 소개하며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타국의 전통 의복 속 숨겨진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의상은 '기모노'이다. 일본은 사방이 바다로 둘러 쌓여있어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덥지만,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기후 변화의 폭이 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기모노를 입기 시작했다. 초기 기모노는 티셔츠를 입는 것처럼 머리 위로 옷을 넣어 입는 구조였으나, 조금 더 편안하게 착용하기 위해 의상 앞부분에 트임을 냈고 그 당시에는 단추가 없었기 때문에 '오비'라고 불리는 허리끈을 이용해 옷을 여몄다. 초창기에는 오비의 두께가 얇았으나 점차 넓은 오비를 사용하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중국의 전통 의상으로는 '치파오'를 들 수 있다. 치파오는 남,녀 의상 모두를 총칭하는 말이지만 보통 여성 의상을 치파오라고 칭하고 남성 의상은 창파오라고 부른다. 청나라 때 중국의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주족의 의상이 중국으로 보급됐고, 후기에 서양 복식 스타일이 들어오면서 중국은 서구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여성미를 강조하기 위해 치파오의 길이를 줄이고 옆 부분에 트임 효과를 준 지금과 같은 치파오의 형태가 보급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게 됐다.

치파오는 실용적으로 입기 위해 면으로 만든 것부터 졸업식이나 결혼식처럼 특별한 날에 입기 위한 화려한 자수가 수놓아진 것까지 입는 사람의 취향이나 상황에 맞춰 골라 입을 수 있도록 색감과 디자인은 각양각색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치파오 외에도 '한푸'를 즐겨 입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중국 Z세대들 사이에서 한족만이 접했던 개성 있는 문화를 체험하려는 인원이 많아지며, 한푸는 최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상으로 뽑히기도 했다.

우리 것은 우리가 직접 지키자

최근 한국의 전통의상인 한복과 전통 음식인 김치의 시초가 한국이 아닌 자국이라는 중국의 발언은 큰 논란이 됐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중국이 가로채려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안겨줬다.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려면 문제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과 역사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중국이 한복의 유래라고 주장하는 한푸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인 한복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우선 한푸는 원피스 형태의 옷으로만 구성돼있지만 한복은 상의와 하의가 철저히 구분돼있으며, 한국은 기마민족인 만큼 여자도 치마 안에 바지를 입는 방식을 예전부터 고수해왔다. 그리고 한푸는 치마폭은 좁지만 소매가 넓고 상의에 깃과 저고리가 없다. 반면 한복은 치마폭이 넓고 소매는 좁으며 깃과 저고리로 상의가 구성돼있다. 또한 의상을 제작할 때 한푸는 마름질은 제외하고 바느질만 하는 반면에 한복은 마름질과 바느질을 둘 다 적용해 만든다는 점에서 외형뿐만 아니라 제작 방식에서도 두 의상은 엄연히 다른 의상임을 알 수 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문화강국론」에서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라고 말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는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며 우리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국의 문화가 우리의 무지나 무관심 때문에 약탈당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문화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꾸준히 쏟는다면 온전하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를 즐기고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글 – 노하은 기자 dmlsu7226@sungkyul.ac.kr

사진– 인스타그램, 네이버 사진

[참조]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경제

그것이 알고싶다

교통체증 멈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19년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92%가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교통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드론택시가 등장했다.

영화의 현실화

군수용으로 시작된 드론의 역사는 어느덧 100년을 훌쩍 넘겼다. 현재 민간 분야에서의 활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오가고 있어 ▲군수용 ▲농업용 ▲방제용 ▲촬영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드론 운송과 드론 택시의 상용화 가능성까지 기대되고 있다.

영화에서만 볼 수 있던 드론택시는 작년 11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드론택시 시연 행사에서 재현됐다. 정부는 이번 시연 행사를 시작으로 2035년까지의 기술로드맵을 발표해 도시문제 해결의 청사진을 그렸다. 기술로드맵에 따르면 기술 수준에 따라 초기·성장기·성숙기 3단계로 분류해 일상화할 계획이다. 단계별 노선과 탑승 장소의 증가, 가격의 감소, 자동화가 이뤄질 것이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대중화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지상 운송수단을 대체할 드론택시의 안정적인 도입이 당겨질수록 도심지역 인구 과밀화로 인한 교통체증, 환경문제와 같은 도시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를 기대하며 교내 융합학부 드론 지도담당자인 강선호 교수님과 드론택시에 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전문가와의 인터뷰

Q. 앞으로의 드론은 기존의 변화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드론 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아마존(AMAZON COM INC) 드론 택배, 의료계 장기이송 및 환자이송, 차와 드론의 결합 등 민간분야에서 드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며 무인화, 대형화,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획기적인 기체가 되도록 개발될 것 같습니다.

Q. 해외에서와 같이 발전된 미래의 드론시장에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이 주요하게 작동될 것 같습니다, 드론의 소프트웨어화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방제용 드론은 한 명이 한 대만을 조종할 수 있었으나, 최근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한 명이 7대를 한 번에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드론 소프트웨어 시장은 고부가 가치를 가진 시장이므로 한국 시장에서도 하루빨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세계시장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전세계적으로 교통체증과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UAM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UAM 도입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 연구는 어느 단계에 있으며 언제쯤부터 상용화가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한화시스템,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등이 UAM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2024년 운행을 목표로 개발 중인 UAM의 속도는 290km/h이고 총 100km정도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은 1700원/km 정도로 책정 된 것 같은데, 이착륙장의 편리성과 안전성만 보장된다면 시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Q. 대한민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미래에 UAM이 상용화됐을 때 분단국가라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저도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율 비행 중에 해킹을 당하거나 바이러스에 의한 불상사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전제로 특수상황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인천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 대부분이 평양 비행정보구역을 우회해서 비행하고 있기에, 영공에 대한 논란은 따로 없어 국제법상 문제도 없을 것 같습니다.

Q. 본교에서도 드론학과를 포함한 융합학부를 개설해 다가오는 미래 산업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본교 드론학과의 교육이념과 목표 그리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학습하는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교 드론학과는 4차 산업혁명의 상징적 산물인 드론에 의해 조성되는 드론 스포츠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과 파생산업을 위해 ▲드론 운용 ▲드론 조종 ▲드론 촬영 운용 ▲드론 콘텐츠 운용과 ▲드론 정비에 이르는 제반기술을 교육함으로써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창의적이고 실무 능력을 갖춘 차세대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현실의 영화화

사회는 과학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발전해가고 있으며 동시에 미래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과학 기술이 모든 사람에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해 한 가지의 기술이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앞으로 이로울 것이다.

미래형 기술인 드론이 우리의 삶에 녹아들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다. 7년 전 지인과 함께 인터스텔라, 마션 등의 SF 영화를 보며 했던 말이 있다. "스크린 너머로 본 기술들은 사실 예전부터 연구 중에 있던 것들이고, 살을 붙여 만든 것이 영화일 지도 몰라. 그러니 몇 년 후에 우리는 저런 시대에 살고 있을지도?"

글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참조] 전자뉴스, YTN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잡학사전

티끌모아 행복, 재테크 편

부제: 티끌모아태산은오래걸릴지모르지만티끌모아행복은순식간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남긴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 더 힘이 실리는 문구가 아닐까 싶다. 만약 돈을 많이 모으려면 아는 정보가 많아야 한다. 재테크를 하는 방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실생활에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재테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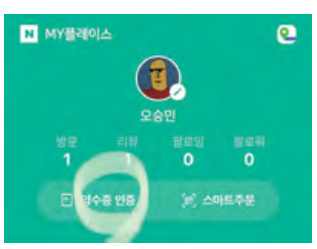
(1) 이런 재테크도 있던데

소비자들이 매장에서 계산 시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영수증은 버려주세요"일 것이다. 하지만 '네이버 MY플레이스 영수증 리뷰'를 알고 있다면 "영수증 주세요"라고 요청해보자. 이 서비스는 영수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이용자들의 소비패턴을 추적해 니즈에 맞춰 서비스 및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됐다. 또한 해당 사이트에 과하게 늘어난 거짓 광고에 있어 직접 방문해 소비했다는 증거와 함께 리뷰를 제공함으로써 실제 이용 고객을 통해 해당 매장에 신뢰도를 높여주기도 한다.

(2) 어떻게 하는 건데 그거?

대략 2분 정도 소요되는 영수증 리뷰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소개하겠다.

1. "네이버 MY플레이스"를 검색한다.
2. 영수증 인증 버튼을 클릭하고 사진 촬영을 누른다.
3. 영수증이 다 보이게 사진을 찍고 스캔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4. 방문 장소 및 방문 일자를 확인하고 맞으면 '방문 인증 완료'를 누른다.
5. 별점 및 리뷰를 솔직하게 남기고 우측 하단에 '등록하기'를 누르면 끝.
6. 포인트 지급은 네이버 측에서 검토를 마쳐 이상이 없으면 지급이 되니, 일정 기간 후에도 미지급 됐다면 직접 문의를 해 확인하면 된다.



이 재테크의 장점은 제공자는 데이터를 쌓고, 반대로 사용자는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는 것이다. 네이버에 쌓인 정보가 많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리뷰를 통해 좋은 소비를 할 수 있다. 좋은 소비, 다른 영수증 재테크 서비스를 제치고 네이버 MY 플레이스를 소개한 이유이다.

(3) 이건 알고 합시다!

서비스 이용 시 한 장의 영수증으로 동행인과 함께 리뷰를 작성할 수 있지만, 개별 촬영을 해야 하며 리뷰 사진을 공유해서 사용한다면 어뷰징으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포인트 회수가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즉 모든 영수증이 다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푸드트럭 ▲길거리 노점상 ▲온라인 쇼핑몰과 ▲관리비 영수증 등과 같이 장소라고 특정하기 애매한 영수증은 처리되지 않고, 환불 영수증과 해외에서 결제한 영수증도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MY플레이스에서 지속적으로 공지사항을 업데이트 하니 참고하여 이용하면 된다.

이를 제외하고 영수증 리뷰를 할 시에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은 영수증 내에 기재된 개인정보 유출이다. 웹·앱의 기능이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의 개인정보 역시 많은 곳에 이용된다. 이에 네이버에서는 앞서 언급한 필수 조건(▲업체명 ▲업체주소 ▲업체전화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결제일시 ▲결제승인번호 ▲결제금액)을 제외한 영수증의 모든 요소를 가린 채로 업로드 해도 리뷰가 처리되도록 설정해 사용자의 불안을 덜어준다.

이번에 소개한 재테크 방법은 한 달간 열심히 이용했을 때 약 5,000 네이버 포인트 정도 지급 받을 수 있는 ZERO RISK LOW RETURN 방식이다. 하지만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 얼마 안 되는 이 포인트로 부를 쌓을 수는 없겠지만 현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삶의 질을 얻는 등 다른 티끌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글 – 오승민 기자 sm961215@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 [참조] 매일경제, 전자신문

기자 칼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정우민 기자

내가 가장 처음으로 마주한 죽음은 학교 앞에서 500원에 산 병아리의 죽음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그 어린 날, 이부자리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봤던 새벽 한 시의 푸른 달빛이 기억난다. 잠도 안 자고 구슬프게 울었던 그 병아리의 보드라운 털을 만지며 평생 함께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기억난다. 그러나 태어나길 약하게 태어난 병아리가 며칠 지나지 않아 싸늘하게 식은 채로 발견돼 오빠와 함께 휴지에 돌돌 말아 튼튼한 나무 아래에 묻었던 게 기억난다. 숨이 넘어갈 때까지 울었던 그 감정이 기억난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그리움과,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중첩된 무거운 마음이었다.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마주한 죽음은 막내 조카인 나를 사랑으로 대해주신 이모부의 죽음이다. 알아도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평소와 똑같은 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사촌 언니가 물기 가득한 목소리로 고비를 전할 때가 기억난다. 핼쑥해진 이모 얼굴이 기억난다. 장난스럽게 등을 긁어 달라고 하던 이모부가 기억난다.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는 그리움과, 조금 더 잘해드릴 걸 하는 후회가 중첩된 버거운 마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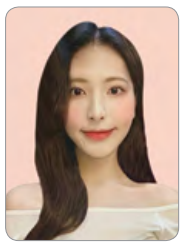
정확한 시점은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죽음에 대해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 아침엔 일어나기 힘들어서 죽고 싶었고, 점심엔 배가 너무 불러 죽고 싶었고, 저녁엔 내일이 오는 게 싫어 죽고 싶었다. 평일엔 평일 나름대로 죽고 싶은 이유가 있었고, 주말엔 주말 나름대로 죽고 싶은 이유가 있었다. 별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극심한 우울증이 무기력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삶의 이유를 찾기보단 항상 피곤에 절은 상태로 순간순간 숨이 멎길 바랐다. 그렇게 몇 개월을 반복했을까, 삶의 이유를 찾지 않으니 진심을 다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한 번 쓰러진 마음은 다시 세울 수 없었고 그냥 걷다가도 눈물이 쏟아지곤 했었다. 어느 순간 거울 속에서 마주한 나는 나를 위한 휴식도 제대로 취하지 못해 몸도 마음도 많이 망가져 있었다. 세상 앞에서 내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통탄한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스스로를 왜 이렇게 혐오하는 것인가 궁금해졌다. 나는 죽음의 무게를 안다. 까마득히 어릴 때부터 죽음을 이해하고 그 무게를 느꼈다.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망했던 건 어쩌면 살고 싶다는 열망이었을지도 모른다. 타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이기적이게도 타인에게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알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필자처럼 우울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추세다. 길어지는 전염병의 시대에 지쳐 자신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파란색으로 물든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께 물어보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불가항력적인 요즘 시대의 풍경에 완전히 지쳐버려 발을 구르는 방법을 잊고 멈춰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현대가 만든 끝없는 파란색 속에서 추락 중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헤엄치는 곳이 파란색 바다일지, 파란색 하늘일지 그것 또한 아무도 모르기 마련이다. 그러니 우린 적어도 발을 구르는 것을 멈추지는 말자. 끝내 당신의 파닥임은 그 어떤 노력보다도 찬란히 빛날 것이다.

글 – 정우민 기자 jelly1110@sungkyul.ac.kr

체험 에세이

나를 돌아보기에 충분한 7일의 시간



정예슬 수습기자

잔잔하고 평범한 토요일의 오전, 어느 때와 다름없이 평화로운 날이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갑작스레 걸려온 전화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리고 동네 보건소에서 말하길, "3월 XX일 스터디카페 2번 자리 이용자 맞으시죠? 옆자리에서 확진자가 나와 밀접 접촉자로 분리되셨어요. 지금 바로 검사받으시러 오세요"라며 촉구했다. 이에 나는 바로 보건소로 향했고 다음 날, 음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일주일 동안 집 주변 한 곳 나갈 수 없는 자가격리자가 돼야만 했다.

평소 집에 있을 때 무기력함을 느끼고 집은 재미없는 장소라는 생각이 강했기에, 일주일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소식은 너무나도 큰 청천벽력과 같았다. 강의 하나를 듣는 것조차 집이 아닌 스터디 카페에서 들었으며, 일정이 없는 날이면 아르바이트에 가곤 했기 때문이다.

첫날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 오로지 넷플릭스와 유튜브 그리고 게임에만 의존하며 나름대로 참을 만한 하루를 보냈다. 문제는 그 다음날부터였다. 첫날과 다르게 둘째 날부터는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를 시청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때부터 집에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은 식물 키우기다. 자가격리 소품 중 새싹 키우기 키트를 꺼내 심고, 매일 아침 물을 주며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했다. 나의 영향으로 매일 변화하는 새싹을 보며 함께 성장하는 느낌을 받았다. 두 번째는 진로 고민이다. 필자는 꿈과 작은 목적 하나 없이 의무감 하나로 토익 공부를 하곤 했다. 그러나 집에 있는 동안 "내가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공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진정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수백 번을 고민한 끝에 비로소 공부의 목적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잊고 있던 취미 찾기였다. 고등학교 시절 스트레스를 풀어줬던 피아노는 아르바이트와 학업, 그리고 다른 공부에 가려져 어느새 잊힌 취미가 됐다. 그러나 거실에 있던 피아노는 자가격리 동안 지루해하던 나를 의자로 이끌었고, 악기 연주 그 자체에서 오랜만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가족과의 시간이다. 필자가 밀접 접촉자로 분리돼 자가격리 하게 되면서 부모님과 언니 역시 직장 내에서 격리 요청을 받게 됐다. 각자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느라 같은 밥상에 앉기도 힘들었던 전과는 달리 일주일 동안 얼굴을 마주 보며 함께 요리도 하고, 밥을 먹기도 했다. 이렇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굳이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도 화목함을 느낄 수 있었다. 여태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족끼리 서로 바빠 시간을 맞추기는커녕 혼자 쉬기에만 급급했다. 그러나 자가격리를 하며 보내온 7일은 가족과 함께 '나'라는 사람을 돌아볼 기회를 선물해줬다.

우연히 얻게 된 휴식 시간 7일, 필자는 이 시간부로 무엇이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됐다. 도착지 없이 앞만 보고 달릴 때 당신은 어떤 소중함을 알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때로는 '열심히'보다 '여유롭게'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글 – 정예슬 수습기자 jys020907@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창공을 높이 나는 새처럼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의 소설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매일 먹이를 찾아 나서는 다른 갈매기들과 달리 비행을 꿈꾼다. 날개가 찢어지고 부러지면서까지 높이 날아오르려 발버둥 치지만, 갈매기가 독수리처럼 비상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그럼에도 다시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친 건 비행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고개를 숙인 채 바닥을 찍으며 허기를 달래고 싶지 않았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창공을 높이 나는 새가 되길 열망했다. 다른 시선. 그가 운명을 바꾼 방법이다. 가장 높이 날아 세상 끝 바다에 닿기까지.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갈매기들에게 꿈을 향해 날아가라고 말한다.

우린 어릴 때부터 꿈을 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상들을 잊어버리고 만다. 현실을 직시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가능성을 가늠한다. 어떤 꿈이든 항상 늦었다고 판단하거나 철없다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의 말에 의욕만 잃어갈 뿐, 받아칠 배짱도 부족하다. 무엇보다 힘든 건 자신을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목표지점으로의 도약은 각자가 정한 가능성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본인이 단정 지은 가능성에 따라 미래의 방향도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 가능보다 불가능을 꿈꾼다. 자신의 현실과 꿈의 괴리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할 수 있다'를 외치라는 건 아니다. 인간이기에 현실을 고려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개인의 꿈, 직업이란 단어로 형용할 수 없는 이상을 향해 갖는 긍정은 무한대로 달려도 좋다. 조나단이 시선을 올려 하늘을 봤듯이 우리의 시선도 달라질 필요가 있다. 현실에 안주하며 청년의 때를 보내는 것보다 창공을 높이 나는 새처럼 꿈의 대로를 달리는 건 어떨까? 코끼리가 되고, 나무가 되고 싶던 어릴 적 꿈들을 하나, 둘 꺼내 보자. 꿈을 생각보다 단순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가윤 편집장 rt0120@sungkyul.ac.kr

주간사설

미일정상회담과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

임태균 교수
동아시아물류학부

지난 4월 16일에 있었던 미일정상회담은 바이든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초로 갖는 대면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미일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대만을 언급하며 1969년 이후 무려 52년 만에 중국을 겨냥한 성명을 내놓아 향후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수상 역시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기조에 보조를 맞춰 미국 주도의 '반중국 글로벌 질서'가 형성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태도는 대중국 견제 정책인 쿼드 가입을 차일피일 미뤄왔던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비교해볼 때 온도차는 분명해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보로 인해서 중국의 반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중국이라는 점에서 손득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보인 스가 정권의 친미 행보로 인해 일본이 얻는 소득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센카쿠 열도와 올림픽 개최에 대한 지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기를 전후해서 일본 정부는 IAEA와 미국의 비호 아래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 오염수 방류 결정을 둘러싸고 한국은 중국과 더불어 연일 한목소리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두 번째 정상회담 상대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과연 한국 정부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5월 하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정상회담에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벌써부터 귀추가 주목된다.

교수칼럼

건물의 기초와 같은 교양교육

전요섭 교육학박사
파이데이아(교양교육)칼리지 학장

모든 학부생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성된 교과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 교양학부를 거쳐 전공학부에서 대학교육을 마치게 된다.

교양교육은 영어로 general education이라 하며, 다른 용어로는 liberal education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용어들이 함의하는 것은 대학교육이 전문/전공교육 및 직업교육화되어 전공지식에 편향되는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교육 및 인간정신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다양하게 열린 배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라 할 수 있다.

교양과목은 다른 용어로 '인문학'이라고 인식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이른바 '문사철'(文史哲)로서 문학, 역사, 철학(종교학은 철학에 포함)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인문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비물질적 대상)추구 학문이라 하여 '형이상학'으로 부르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제1의 철학'이라고 했다. 현대 학문에서는 이를 '인문과학'이라고도 하는데, 근래에 들어 학문을 '과학'이라고 부르는 추세에 따라 인문학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자들 가운데는 이를 '과학'으로 명명하는 것에 대하여 인문학의 고유성 또는 순수성을 흐리게 하고, 자연과학의 지배적 영향이라 생각하여 탐탁치 않게 여기는 일각도 있다. '형이상학'의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는 '형이하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가치(대상)를 추구하는 학문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를 '제2의 철학'이라 했으며, 현대 학문으로 '자연과학'이라 한다.

인문학(인문과학)은 통상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인간과 인간의 문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표현 능력을 탐구하고 그것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전문/전공교육 및 직업교육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특정 지식이지만 그것으로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소양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대 로마시대로부터 중세시대 대학에 (전공과정이 있었지만) 교양교육을 통해 학문적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전통에 기인하여 전 세계 대학에 교양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곳은 없으며, 작금에 와서 그 과목도 매우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의 경우, 1979년부터 학부 학생들이 전공교육을 받기 전에 전체 학점의 25%에 해당하는 교양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교과과정(커리큐럼)을 수립한 바 있다. (우리대학은 교양교육이 강화된 특성으로 졸업학점 123학점 중 교양은 34학점으로 28% 비중)

교양과목도 전공과목과 마찬가지로 선택과 필수로 나뉘는데, 선택교양은 기초교양이라 할 수 있고, 필수교양은 핵심교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선택교양은 학문의 기초가 되는 교과목이기도 하며, 동시에 시대상황에 맞는 다양한 응용학문으로 구성된다. 핵심교양은 건학이념 구현 및 교육정책에 따라 핵심으로 삼고자 강조하는 교과목인데 우리대학의 경우, 기독교/성경, 영어 커뮤니케이션, 글쓰기, 컴퓨터 코딩 등이 그것이다. 전공분야의 학문을 심화하기에 앞서 인문학 전공자도 자연과학을, 자연과학 전공자도 인문학적 소양을 충분히 갖추어야만 균형잡힌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리대학의 교양교육 영역은 크게 네 가지(첫째: 기독교적 인성교육, 둘째: 글로벌 의사소통, 셋째: 창의적 사고, 넷째: 4차 산업혁명시대의 현장 직무)로 학문적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대학 초년생 때부터 학문적 균형과 기틀을 잡아주는 것은 단순히 대학생에게 고등교육을 가르친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BC. 4세기부터 '교육'을 일컬어 'paideia'(파이데이아, παιδεια)라고 했다. 이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개념'을 넘어 교육대상이 장차 훌륭한 시민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틀을 잡고, 균형잡힌 지도를 한다는 의미이다. 본디, 이 용어는 주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는 뜻이 내포된 말이기도 하다. (그리스어 파이데이아에서 'παιδ-파이드'는 어린이, 아동의 의미) 그렇다하여 파이데이아가 전적으로 아동교육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을 교육함에 있어서 반드시 초기에 인식의 틀을 잡아주는 교육적 의미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파이데이아는 (물론 아동교육도 포함되지만) 이를테면, 신입생교육, 초년생교육, 초기교육, 기본교육, 기초교육, 사전교육 등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을 '파이데이아 칼리지'라고 명명하고 있다.

교양교육은 기초학문이므로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건물의 기초를 놓는 것으로 비유된다. 즉, 전공학문이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적인 학문, 인간을 위한 학문이 되도록 하고, 장차 시민사회 지도자로서 합리적인 사고와 태도를 구비하도록 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목적이다.

더 나아가 우리대학은 일반교양교육이 추구하는 목표를 넘어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 양성을 위해 기독교와 성경에 대하여 개괄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의 교과목을 핵심교양으로 삼고 있다. 이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채플의 이해와 적응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인격과 품성 함양을 위해 강조해온 필수교양이다.

학문의 기본(기초)이 되는 교양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중요한 것이므로 자신의 전공학문을 견고하게 수립하려는 학생은 먼저, 교양교육의 기초를 건실하게 잘 다져야 할 것이다.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각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아 옆의 표에서 지워주세요.

떡	로	리	주	복	륲
마	로	보	영	마	학
아	의	학	볶	민	실
미	한	아	인	업	디
수	메	사	이	어	카
제	습	증	노	주	드

문제의 답을 모두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 단어를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각 문제는 이번호 기사의 관련 용어를 가리킵니다.

지난 호 정답

1. 대학면 코너 '놀면 뭐하니'에서는 2021년도 ○○○○○ 향상 특강에 대해 설명했다.
2. '배달의 만족'에서는 정기자가 ○○○○○를 직접 맛본 후 서열을 정했다.
3. 일반적으로 불경기는 취업률이 낮아지고 ○○○이 높아지는 상황을 말한다.
4. ○○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의복이다.
5. ○○○는 최근 학생회관 223호로 이전했다.
6. '알쓸신잡'에서는 ○○○을 활용한 재테크를 소개하고 있다.
7.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테라피를 ○○○테라피라고 한다.
9. 최근 미얀마 시민들은 ○○○○의 봄이 오길 소망하고 있다.
10. 학보사는 ○○○센터의 소속 기관으로 학보를 발행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응모기간 : 5월 14일(금)까지
응모방법 : 학보사(학생회관 223호)로 제출해주세요

〈정답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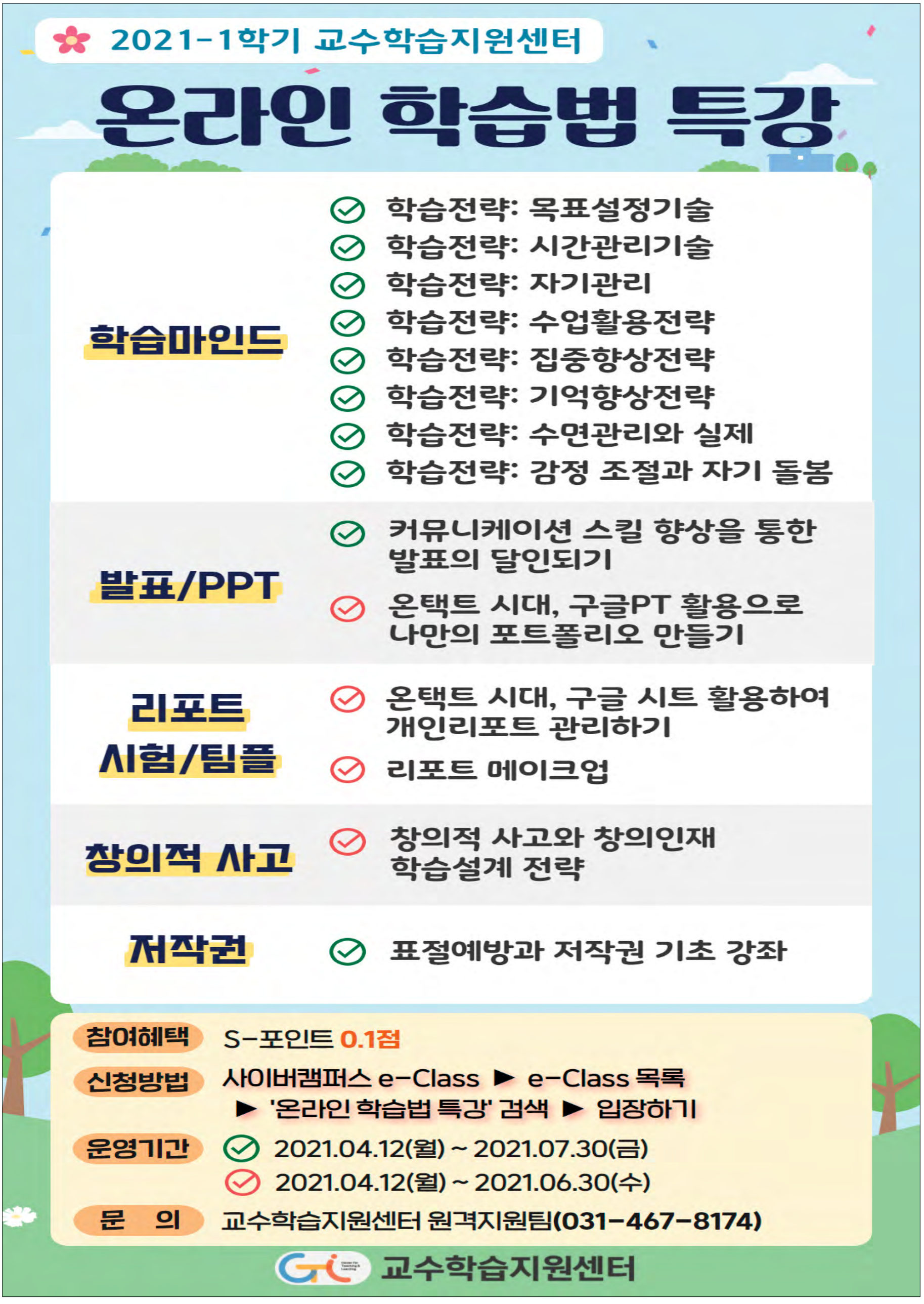
독 자 참 여

성결대학보사에서는 학우들의 귀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퍼즐과 함께 학우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은 기사는 무엇인가요?
2. 다음 호에 다뤘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3. 만약 다음 호부터 새로운 코너를 기획한다면 생겼으면 하는 코너가 무엇인가요?
4. 학보사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부(과) : 연락처: 이름:

거침없는 청년정신 / 도전하는 기자정신 / 잘나가는 학보사


2021-1학기 교수학습지원센터
온라인 학습법 특강
학습마인드
학습전략: 목표설정기술
학습전략: 시간관리기술
학습전략: 자기관리
학습전략: 수업활용전략
학습전략: 집중향상전략
학습전략: 기억향상전략
학습전략: 수면관리와 실제
학습전략: 감정 조절과 자기 돌봄
발표/PPT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통한 발표의 달인되기
온택트 시대, 구글PT 활용으로 나만의 포트폴리오 만들기
리포트 시험/팀플
온택트 시대, 구글 시트 활용하여 개인리포트 관리하기
리포트 메이크업
창의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 창의인재 학습설계 전략
저작권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참여혜택
S-포인트 0.1점
신청방법
사이버캠퍼스 e-Class ▶ e-Class 목록 ▶ '온라인 학습법 특강' 검색 ▶ 입장하기
운영기간
2021.04.12(월) ~ 2021.07.30(금)
2021.04.12(월) ~ 2021.06.30(수)
문 의
교수학습지원센터 원격지원팀(031-467-8174)
교수학습지원센터